

玉山書院文庫

李 春 熙

(成均館大學校 圖書館學科長)

요즘 도하 각 신문에는 玉山書院의 「三國史記」盜難事件이 크게 報道되고 있어, 一般의 많은 關心을 끌고 있다.

내가 玉山書院의 藏書를 처음으로 보게 된 것은 1968年 여름이었다. 그해 여름放學을 이용하여 전국의 主要書院을 순방하고, 各書院에 所藏되고 있는 모든 藏書를 일일이 調査目録한 일이 있었는데 玉山書院의 冊을 보게 된 緣由도 이런 계획에서였다.

玉山書院은 慶北 月城郡 安康邑에서 서북쪽으로 約 10里 떨어진 곳에 位置하고 있는데, 中宗때의 文臣 晦齋 李彥迪을 享祀한 書院이다. 宣祖 癸酉年(1573)에 創建되고 賜額은 다음해인 甲戌年으로 書院史上 열번째로 賜額된 初期書院의 하나이다.

따라서 이 書院에 보관되고 있는 書院冊中에는 壬辰亂 이전의 貴重本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이 書院의 藏書는 書院境內에 자리잡고 있는 建坪 4,5坪 정도의 조그마한 書庫에 보관되고 있다. 藏書數는 모두 5책 3種, 2권 8책 47冊(1968年 8月 現在)으로 그中 約 60%는 文集類이다.

鑄字本으로는 「乙亥字本」(2種 99冊), 「丙子字本」(1種 75冊) 등 모두 16種 3책 40冊이 있다. 특히 이中에서는 宣祖 10年(1577)에 丙賜된 「朱子大全」(乙亥字本 95冊), 「朱子語類」(丙子字本 75冊) 등 巨帙本들이 단 한冊의 落帙이 없이 그대로 保管되고 있어 書院文庫本으로서는 陶山과 玉山 두곳에서 밖에 볼수 없는 完帙本들이다. 이 밖에도 수많은 壬亂前 版本들과 丙賜本들이 잘 保存되어 있는 편이며 특히 正德版으로 알려져 있는 「三國史記」(5冊零本)가 4冊을 缺한 落帙本이기는하나 그대로 잘 보존되고 있는 편이다.

玉山書院文庫는 陶山の 그것과 더불어 우리 나라의 現存 書院文庫中 그 保存이 가장 잘 되어 내려온 곳이며, 壬亂때에도 별 被害를 입은 바 없었다. 玉山書院은 오히려 兵火로 被害를 입은 中央의 弘文館의 요청을 받아 院藏書冊 23帙을 壬亂直後인 1599年에 서울에 올려보낸 사실이 있을 정도로 그 보관이 잘 되고 있었다.

이 밖에도 玉山書院은 그 姉妹文庫라고 볼수 있는 獨樂堂의 御書閣文庫가 있다. 書院 앞을 흐르는 溪流

를 따라 約 1「킬로미터」쯤 올라가면 晦齋의 故宅인 獨樂堂이 보인다. 獨樂堂 바로 뒤에 자리잡고 있는 3坪 남짓한 집이 문제의 「三國史記」를 도난 당한 書庫이다. 이 書庫에도 玉山書院의 그것과 같이 「御書閣」이라고 쓴 懸板이 걸려있다. 두 書庫에는 모두 다 나라에서 賜書한 丙賜本들을 보관하고 있는 까닭에 이러한 內容의 懸板을 붙인 모양이다.

여기에 보존되고 있는 藏書는 도합 3책 63種, 1권2책 64冊(1968年 8月 現在)으로 晦齋 個人에게 下賜된 丙賜本들을 위시하여 그의 眞蹟과 手澤本들을 많이 보관하고 있다. 鑄字本으로는 『甲寅字本』이 12種 3책 26冊, 『乙亥字本』이 7種 1책 19冊, 『甲辰字本』이 2種 18冊등 도합 40種 7책 30冊을 보관하고 있으며, 이중에서도 中宗 8年(1513)에 乙亥字로 간행된 『正德癸酉司馬榜目』은 현재까지 발견된 司馬榜目中 鑄字本으로서는 最古의 唯一本이다. 獨樂堂本中 특히 우리의 주목을 끄는 書籍들은 문제의 『三國史記』(50卷 9冊)를 비롯하여 晦齋의 親筆本으로 여겨지는 『中庸九經衍義』, 『奉先雜儀』, 『進修八規』등 草稿本들과, 金生, 靈業, 坦然등 新羅, 高麗 名家들의 筆蹟을 알아 볼수 있는 『海東名跡』등이다.

지난 7月 27日 나는 文化財管理局의 위촉을 받아, 玉山の 兩御書閣本中 위에 열거한 귀중한 書冊들에 대한 文化財指定을 위한 調査次 다른 두 委員과 같이 이곳을 제차 방문하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들이 지정대상으로 삼았던 것중의 하나인 『三國史記』는 이미 10餘日前에 도난을 당하고 없었다.

이 獨樂堂本 『三國史記』는 이미 널리 알려지고 있는 바와 같이 50卷 9冊으로 구성된 正德版으로 慶州에서 中宗年間에 간행한 國內 最古의 完帙本이다. 『三國史記』는 『三國遺事』와 더불어 우리 나라 古代史研究에 가장 根幹이 되는 現存 最古의 基本史書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그 내용은 『新羅本記』 12卷, 『高句麗本記』 10卷, 『百濟本記』 6卷, 『年表』 3卷, 『志』 9卷, 『列傳』 10卷으로 도합 50卷이며, 代表 著者는 高麗 仁宗 때의 金富軾이다.

『三國史記』는 仁宗의 命을 받아 金富軾등이 撰進한 것으로 보아, 그 初版은 편찬 당시에 이루어진 것이 분

명하나 이 高麗本은 傳存되는 것이 없고, 李朝에 들어와서는 慶州府使 金居斗에 의해 간행된 소위 洪武版이 있으나, 이 版本 역시 傳存되고 있지 않다. 이 洪武版은 按察使 沈孝生이 求得한 『三國史記』를 가지고, 前府使인 陳義貴가 太祖 2년에 착수한 『三國史記』간행 사업을 金居斗가 이어 받아 太祖 3年(1394)에 완성한 것이다. 金居斗의 跋文에 의하면 이 洪武版 이전에도 또 한번 『三國史記』가 慶州에서 간행된 듯 하나, 그 年代를 확실히 알 수는 없다. 아무튼 위의 沈孝生이 求得한 版本이 2版이라고 한다면, 金居斗의 洪武版은 세 번째 版이 되는 셈이다.

그 후는 成宗 13년에 간행된 사실이 國朝寶鑑에 나타나 있으나 이것 역시 現存本이 없으므로, 확실한 것은 알 수 없으며, 간행되었다면 王命에 의한 官印版이었을 것임으로 鑄字本임이 틀림없을 것이다.

이와 같이 正德版 이전에 만도 전후 4회에 걸쳐 『三國史記』가 간행된 듯 하나 그중 어느 版本도 현재 전해지고 있는 것이 없다. 따라서 이른바 正德版이 現存最古의 『三國史記』가 되었는데, 이 版本은 그 版式이 고르지 않고 補版이 간혹 있을 뿐만 아니라 高麗때에 鑄한 글자 틀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 金居斗 당시의 版本을 그대로 底本으로 사용한 것이 분명하며 그 일부는 洪武版의 版本을 그대로 이용한 것이라고도 추측할 수 있다.

이 正德版도 그 完帙本으로는 獨樂堂의 御書閣所藏

本과 서울 金完燮씨의 個人所藏本 두帙이 남아있을 때름이다. 獨樂堂本은 中宗年間에 慶州에서 간행한 것 같으며, 현재 書院御書閣所藏의 5冊零本은 欄外에 「萬曆元年八月日 玉山書院上」이라고 記載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宣祖 6年(1573)에 玉山書院으로 보낸 冊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그 版式이 獨樂堂本과 전혀 동일한 것임으로 같은 正德版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 같다.

아무튼 이번에 도난 당한 三國史記는 우리民族이 永久히 保存해야 할 극히 貴한 共同文化財의 하나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니 하루 속히 되찾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附記：이 原稿는 「月刊中央」九月號에 이미 發表된 바 있으나, 편집자측에서 당시 일부 日刊新聞들의 誤報로 도난 당한 三國史記를 찾아낸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本稿의 一部도 그와 같이 修正하여 마치 도난 당한 三國史記를 되찾아 多幸인 것인양 掲載하였다. 따라서 당초의 筆者 意圖와는 전혀 달라진 記事가 되었으므로 이를 밝히고져 本月報 편집자의 양해를 얻어 當時의 原稿 그대로를 다시 掲載하게 되었음을 附記해 둔다.

한편 玉山書院所藏本 「三國史記」는 원래 4冊을 缺한 落帙本이었는데, 지난번 機會에 이를 빌려간 집을 發見하여 우연히 찾게 되어 完帙이 되었으나, 문제의 도난 당한 獨樂堂의 9冊 完帙本은 現在까지 찾지 못하고 있음을 아울러 밝혀 둔다.

1970

海外學術雜誌 予約案内

- ◎ 海外 學術雜誌 預約購讀에 關한 모든일은 보다 빠르고 正確하게 서비스 하고있는 우리에게 맡겨 주십시오.
- ◎ 海外 學術雜誌 預約購讀에 關한限 世界의 어느 出版社의 刊行物이나 黃下가 願하는 대로 손쉽게 處理됩니다.
- ◎ 우리는 定期刊行부와 單行本部를 設置하고 有能한 職員들로 構成하여 언제나 顧客들의 注文에 對 備하고 있습니다.
- ◎ 우리는 顧客들로부터 들어오는 어떠한 問語에 對 하여서도 빠른 情報를 提供 할수 있습니다.
- ◎ 萬一 貴下께서 아직도 費사와 關聯을 맺지 않고 계시다면 곧 番信이나 電話로 連絡하여 주십시오. 모든 條件과 情報를 提供하여 드리겠습니다.
- ◎ 위에 말씀드린 以外の 일이라도 언제나 協助하여 드릴것을 確信합니다.

파이오니아書籍 유네스코한국위원회쿠폰대행사

서울特別市鍾路區鍾路3街130番地
서울國際郵遞局私書函3553号
電話 (74) 4 8 5 5 · (75) 4 1 5 5

